인생음주운전과 하나님의 무관용

(예레미야 13:1~27)

12.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13.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14.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인생음주운전과 하나님의 무관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인생음주운전과 하나님의 무관용'
지난 9월에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나서 46일 동안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며칠 전에 안타깝게도 윤창호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려대 행정학과에 적을 두고 현재는 카투사 복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젊은이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전역 4개월을 앞두고 휴가 중에 이러한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만취상태로 BMW를 몰았던 가해자인 26살 박00 씨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험운전 치사혐의"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창호 씨 사건과 연관되어서 여야 국회의원 104명이 지난달 21일에 음주운전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술 취한 상태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보기에 인격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독자적인 인격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미국의 미주리 대학교의 레이첼 위노그레드 박사의 연구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56명을 3~4명씩 짝을 지어서 그룹을 만들고 술을 마시게 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 정도가 되게 한 후에 토론이나 퍼즐 풀기 등의 활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을 모두 영상으로 녹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영상을 보여주며 화면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성격을 다섯 가지로 평가하게 하였습니다. 외향적 성격, 신경질적 성격, 성실함, 개방성, 친화력에 대해서입니다. 이 평가가 음주 전과 음주 후로 이루어졌는데 다섯 가지 평가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음주 후에 본래 성격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위노그래드 박사는 실험 결과에 대해 "술에 취해 난폭해지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원래의 성격이다.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는 말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생을 음주운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취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준은 단순히 알코올에 취했다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시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잔뜩 취하게 하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취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취하여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대로 악인의 형통을 가속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해머던지기에서 원심력을 더해 멀리 던지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취하게 하시겠다'라는 이유도 이미 취해서 사는 자들을 더욱 원하는 대로 살아서 더 큰 취함으로 들어 갈 수 있게 내버려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멸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취함에 대해 가지신 생각은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행위와 비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첫째 단락을 보면 '썩은 베 띠'의 비유가 나오고 읽은 부분에서는 '포도주 가죽부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는 의미상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허리띠인데 이것이 썩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허리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심을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의 옷은 통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일을 하거나 외출을 할 때에는 허리띠를 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구원활동을 하시기 위해 허리띠와 같은 용도로 삼으신 것이 선

민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허리띠로 삼고 구원활동을 하려고 하셨는데 이 띠가 썩어버려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민으로서 존재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허리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연관성의 영역 안에서 활동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활동은 나를 허리띠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허리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교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앞장에서는 이 교만을 사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 감히 하나님을 향해 으르렁거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사자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교만하다고 표현하면서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자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어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허리띠의 역할을 하는 선민들이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썩어버린 허리띠의 상태가 술 취함으로 다시 비유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포도주 가죽부대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선민들의 반응이 바로 이어져서 나타납니다.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라고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포도주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는 당연한 소리를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선민들의 마음이 곧 가죽부대이며, 가죽부대에 술이 담기는 것처럼 잔뜩 취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중에 일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의해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서로를 상처 입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선민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시리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에 기계에 숨을 불어넣어서 혈중알코올 농도를 확인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조금 재미있고 원시적인 방법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흰색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내리게 해서 바닥에 흰색 선을 긋고 그대로 걷게 합니다. 그 선을 제대로 인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선에서 걸음이 자꾸 이탈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따라 걷기를 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경찰이

스프레이를 뿌려서 선을 만들 듯이,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고 따라 걷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선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술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밟고 지나가는 생각의 발, 말의 발, 행동의 발이 비틀거릴수록 그만큼 세상에 취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술 취함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취함은 곧 자기중심적인 절대 확신입니다. 자기중심적이 될수록 타인의 사정이나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서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당신만 없으면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자와 같습니다. 설령 사장님 앞에서 쩔쩔 매는 사원의 마음도 사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척을 하고 있을 뿐이지 속마음으로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앞에서는 굽신거려도 뒤돌아서면 바로 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자와 같은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취한 상태입니다. 좌우로 비틀거리는 술주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근본적으로 술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마어마한 인생의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술 취함의 상태가 나타날까요?
그 원인이 바로 앞서 보았던 허리띠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허리띠 비유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활동하시기 위한 도구로써 선민을 선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6절을 보면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640km나 떨어져있는 북쪽의 유브라데 강가에 그 허리띠를 묻어두게 하시고는 다시 찾아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옛날에 걸어서 640km를 왕복하려면 몇 개월이나 소모되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베로 만든 띠는 다 썩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사건을 알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행동에 아무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설령 예레미야의 이러한 행동을 본 사람이 있더라도 미친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강가에

묻어 놨으니 썩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당연한 결과를 보며 무언가를 깨닫고자 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미쳤다고 밖에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일을 시키시며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우화나 환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해석에서는 본문에서 언급된 유브라데 강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한 시냇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에서 유브라데 강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페라트'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쉽게 다른 의미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유브라데 강을 선택하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베띠를 사서 유브라데 강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동안 예레미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브라데 강 유역은 바벨론 제국이 발흥한 곳입니다. 그곳에 선민을 상징하는 베띠를 파묻어야 합니다. 자기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이렇게 머나먼 곳으로 포로로 잡혀 오게 될 것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로써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머나먼 거리가 단순히 선민들을 멀리 내던지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640km를 걷는 만큼이나 선민들의 마음이 자기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체감하시는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고 말았음을 느끼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머나먼 거리가 인생을 음주운전하게 하는 술 취함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악인의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악인이었습니다. 멀어졌다는 것이 예레미야가 걸어야 했던 머나먼 거리와 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선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나갔던 거리가 예레미야가 몇 개월이나 걸어서 유브라데 강을 왕복하며 느꼈던 거리감이었습니다.
이렇게 멀어지게 된 이유는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이고 첫 번째 관심의 자리이자 첫 번째 현실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민들의 첫 번째 현실이 되어야만 했는데, 그 자리에 가족이나 재물 혹은 건강 등과 같은 세상 것들을 들여 놓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배우자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자리에는 배우자의 직장 문제가 들어옵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배우자가 벌어오는 돈 문제가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자리와 연관된 것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허리띠가 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허리띠 예언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 선민들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거리는 또한 술 취함으로 비유됩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 기운이 온 몸으로 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첫 번째로 붙잡은 것들이 술과 같은 역할을 합니

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붙잡았으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생겨납니다. 돈이나 가정에 대한 기대와 염려 같은 기운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 퍼져갑니다. 이것이 술 취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서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직 정상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자녀나 돈 등의 것들을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들여놓은 상태에서는 그것들이 주는 기운이 마음에서 알코올처럼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는 분이 사업이 안 될 때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디까지나 사업으로 인한 기운에 마음이 취한 것입니다. 소주나 맥주 대신에 사업주를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다 술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 꼴을 못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75억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소수를 빼놓고는 저마다 술주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한 사람이 주정을 하면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법입니다. 주정하는 사람을 집에 데려다 주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서로 더 큰 술주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쌓인 것을 술자리에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취하면 다른 한 사람은 들어주고 다독여주면 잘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내가 더 억울하고 네가 잘못했다며 술주정을 부리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처럼 흉한 모습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14절에서는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주정은 고사하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조차도 이러한 술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마음에 담을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예루살렘과 유브라데 강의 거리만큼이나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허리띠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담은 것들이 삶을 지배하는 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돈 술일 수도 있고 자녀 술일 수도 있고 결혼 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술이 되어서 내 마음을 취하게 한다면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은 술주정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인생의 음주운전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용을 보이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싫어하시는 모습을 해결하실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술주정에서 깨어날 마지막 기회로 주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첫 번

째 자리에 세상을 붙잡은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함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할 때에 또한 주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밀착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허리띠로 삼으시고 활동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나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진해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삼키려 한다는 의미에서는 배우자나 자녀도 우는 사자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취하게 하고 삶을 술주정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의 특징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허리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인생의 음주운전을 중단하게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허리띠로 삼는 망령된 삶의 모습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어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